

불길한 소문

2010년 11월 7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9:7-9

(눅 9:7, 개역)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눅 9:8, 개역)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눅 9:9, 개역)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보고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고 확신이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왕의 태도를 그냥 건성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믿으면 안됩니다.

헤롯왕은 우리와 심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라고 홀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조립해낸 예수가 우리 심성이 좋아하는 식으로 조작해낸 가짜 예수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룰 바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남자, 헤롯왕이 느낀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조작해내는 예수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헤롯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즉 헤롯왕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처단했는데 왜 그런 자신이 처분 불가능한 소식이 왜 들려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으로 사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 ‘예수에 관한 솔직한 느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라는 존재는 거추장스럽고 쓸데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정말 짜증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헤롯의 심성이 오늘날 우리의 심성과 다르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그 세계 안에 자신이 놓여서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애써 노동한 분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히 얻을 자기 몫으로 여기지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애써 노력한 그 이상의 것, 여분의 것, 추가분의 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노동의 대가를 후하게 쳐주게 되면 어지간해서 축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노동의 대가를 아주 낮추어버리면 거의 모든 것이 축복으로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헤롯왕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죽일 때는, 자신이 노동의 대가에 세례 요한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헤롯왕은,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 곧 자신이 살고, 살고, 오래 사는 일을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세례 요한은 잉여의 것을 축복으로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농은 그것을 공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제일 좋은 일은 오래 사는 것이지만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바로 아무리 노동해도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이 되니, 결국 ‘죽은 일’이 자기에게 제일 싫은 일이 됩니다.

바로 그 ‘싫은 일’을 세례 요한에게 가한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사수하기 위해 내가 보기에게도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싫어할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헤롯왕이 볼 때, 세례 요한이나 자기나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것을 싫어하리라고 여깁니다.

나에게 사는 일은 좋은 일이고 죽는 일은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 싫어하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부가해서 세례 요한도 자기 인생을 싫어하도록 보복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소식을 접한 헤롯왕이 취한 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축복을 바라고 예수님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의 노동의 대가마저 예수님을 손대면 부엌칼 들고 예수님마저 목 치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접했던 헤롯왕은 다른 태도를 보인 반면에,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 헛방이요 그저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스토킨 것 한 것 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후(死後)의 세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은 결코 자신들이 노를 저어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결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 나갔을 뿐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애씀이나 노고나 기다림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결치신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분 불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언약의 세계’, ‘약속의 세계’라고 합니다. 약속이란 저절

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시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계’란 오로지 약속에 준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좋아하는 것은 결코 자기 신상이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서 죽는 것도 자신의 뜻대로 죽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마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처럼 약속을 듬뿍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그의 죽음조차 약속에 담겨 있는 내용일 뿐입니다. 즉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 자기 인생은 자신의 처분불가능성입니다. 자신의 노고로 그만큼 유지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도가 되지 전에는 자기 노력으로 흠없는 존재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사울아, 네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려고 애써봤자 네만 아플 뿐이다. 그게 무슨 소용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의 죄수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싫은 일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이란 잠자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거나 마시거나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을 쏟아내는 주의 것입니다. (롬 14:8)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보니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피만 쏟아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목을 치려고 덤벼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0강-눅9장7-9불길한소문-luk101107.mp3>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0강-눅9장7-9불길한소문-luk101107.avi>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0강-눅9장7-9불길한소문-luk101107.hwp>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0강-눅9장7-9불길한소문-luk101107.pdf>

2010-11-10 09:38:18 녹취 : 오용익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7-9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분봉 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그 당시 사람이 느꼈던 세례요한, 헤롯이라는 사람이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인상,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의견을 무시해도 상관없을 듯이 보입니다. 헤롯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잖아요.

헤롯 그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따라서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귀신도 아니고 진짜 나쁜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보통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 수백 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눈에 안보이잖아요. 체중을 짚 수도 없고 키를 알아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우기는지, 서로가 서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인도 안 믿고 상대방도 안 믿는데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런 것은 말장난이 아닌가, 교회를 다니는 티를 내는 것이 신상에 좋다 싶어서 위장만 하다가 평생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닌가. 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손에 딱 짚 수 있는 구체적인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손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믿고 싶다, 믿는다, 그것은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지요. ‘난 누구를 좋아한다. 난 박 지성을 좋아한다.’ 만나 봤습니까? 만나 본 적도 없잖아요. 좋아할 수야 있지요. 난 예수 좋아한다, 만나 봤어요? 그것은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가 예수 사

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 땀에는 예수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사랑한 적도 없는데 괜히 자기가 티를 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 누구시죠?’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다고 해서 주님도 같이 ‘나도 너 사랑한다.’ 그렇게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 쪽에서 사랑한다고 쫓아다녀봐도 그것은 스토키에 불과합니다. ‘나는 너 사랑 안한단 말이야.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털어내요. 교회들이 성경 보면서 내가 주님한테 퍼붓는 정성과 애정, 자기가 하는 자기 행세에 자기가 집착하고 애착을 가질 뿐이지 주님이 날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난 너 같은 인간은 사랑 안 해.’ 이러면 인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예, 잘못 들으신 겁니다.’ 노아 방주를 보게 되면,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서 노 젓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지요. 노아방주의 특징이 뭐냐, 물 심판 가운데서 스스로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노아방주가 정지된 것은 아닙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 물결 하나하나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정처 없이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노아 방주가 딱 도착을 한 그 지점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입장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까마귀와 비둘기나 내 보낼 뿐이지요.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 가택 하고 받친 그곳이 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이것을 성경에서는 네 자로 ‘언약의 땅’,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거기서 노를 만들었다든지, 보트에 모터를 달듯이 해서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방치된 상태, 또는 맡겨진 인생,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내려 간 거예요. 어린 모세가 바구니 안에서 떠내려가다 보니까 딱 도착한 곳이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시냇가에 도착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 지나서 천국 가는 그것도 역시 어릴 때의 그 인생이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난 그 떨기나무는 늘 상 양치면서 봤던 떨기나무고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떨기나무예요. 우리가 매일 가는 직장이 특별한 게 없고 매일 잠자고 있는 그 방이 특별할 게 없고 매일 주일마다 오는 이 교회가 특별한 것이 없듯이 모세는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로막을 줄이야!

모세의 가는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양치기 끝!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이미 하게 되어 있다.’ 못한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되지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말씀을 못 지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 그 질문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지키라고 말씀 준줄 압니까?

지키고 말고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구원되고 말고 한다는 그런 것은 이미 우리 레벨에서는 떠난 상태라는 말이지요. 말씀 하나하나가 뭐가 되느냐하면, 이게 방주를 움직이는 물결이에요. 방주 하나하나가 물결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것처럼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움직이는 물결로서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정전이 되었는지, 이것도 하나의 물결인지 모르겠네요. 헤롯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그 당시에 헤롯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았느냐. 헤롯이 본 그 예수님은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룰 바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헤롯이라는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넘어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왕이 등장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과연 주님께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보는 일에 헤롯이 실수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평소에 실수하는 것과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실수했느냐 하는 것이 본문 9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헤롯이 전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에게 시켜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다는 겁니다.

목을 벤 거예요. 헤롯왕은 세례요한의 목을 벤 것을 뭐로 보느냐 하면, ‘내가 세례요한을 죽였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너도 싫어할 것이다. 세례요한! 너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이 헤롯왕인 나에게는 어림도 없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나는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자르고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헤롯왕은 무엇을 평소에 싫어하느냐 하면 죽는 것을 싫어했어요. 죽는 것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했느냐, 사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헤롯왕이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봤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단 챙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일단 거부하겠다.’는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둘이 되어서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여러분은 하여튼 헤롯왕은 나쁜 놈이고 세례요한은 좋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헤롯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요한을 목을 친 거예요.

왜 목을 쳤느냐, 이 나쁜 헤롯왕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제일 무섭고 싫은 것은 죽는 것이다.’ 한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안 죽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갑죽거리는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세례요한이라는 말이지요. 그 세례요한에게 헤롯왕, 이 나쁜 인간이 말하기를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고 까부는 것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내 손에서 해결해 줄게.’ 하고 목을 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죽는 일이 싫어하는 일입니까? 세례요한이 복음 전하는 그것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충분하게 가짜일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충분하게, 넉넉하게 사기이며 위선이며 가짜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롯왕이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사후의 세계와 이 세계 말고 미지의 세계, 죽음의 세계, 혹은 천국의 세계가 같은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일단 죽어봐야 아는 세계, 내가 일단 죽고 난 뒤에 가는 세계를 사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가 바로 내가 죽고 난 뒤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와 지금 세계가 다르다고 하는 이것은 철딱서니 없는 인간들의 일방적 주장이에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해석이 이렇게 난해한 거예요. 이렇게도 어려운 겁니다. 성경을 천 독했다는 목사를 봤어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천 번을 읽으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냄새를 맡는데 개 한 마리 동원시키는 것과 사람 천 명 동원시키는 것과 어느 것이 효과 있느냐하면 개 한 마리가 훨씬 효과 있어요.

왜, 개의 후각이 더 발달했으니까. 같은 인간들 모아놓아 봐야 제 코나 내 코나 같은 코니까 어느 코도 개 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천 명을 놓아도 기껏해야 개 한 마리보다 더 못한 거예요. 2천년 기독교역사상 모든 신학자들을 다 끌어 모아보세요. 개 한 마리 보다 더 못하지요.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 교회사람 끌어 모으기 위해서 작당을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진짜 신학은 세례요한처럼 세상을 보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현실이 진짜 성경속의 현실입니다. 더 뜸들일 것도 없이 헤롯왕은 ‘내가 살아 있는 이상은 내가 보는 것이 옳고 죽고 난 뒤에 세계는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헤롯왕은 다 몰라요. 죽고 나서의 세계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상

태에서 당신이 안다는 그 세계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약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아는 것이 없지요. 다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나, ‘나는 항상 살아 있는 것이 좋고 죽는 것이 내게는 버겁다. 죽는 것은 내가 다룰 수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철학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세계와 처분할 수 없는 세계로 나누거든요. 가능한 세계와 불가능한 세계로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쯤은 내가 다룰 수 있고 저 정도는 내가 다룰 수 없는 것이니까 다룰 수 없는 것은 신에게 맡기고 다룰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축복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엉터리인지 봅시다. 사람들이 축복을 이렇게 봅니다. 노동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여분으로 주어질 때 축복으로 봐요. 노동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여분으로 주어지는 것.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예상 수익이 10퍼센트 나온다면 10퍼센트의 수익이 나올 때는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20퍼센트의 수익을 올렸다면 노동으로 예상한 그 10퍼센트를 빼고 나머지 10퍼센트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식의 5퍼센트 수익을 내다 봤는데 20퍼센트의 수익을 올렸다면 15퍼센트를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이란 일단 내가 예상한 내 노동의 대가인 그 분량을 빼놓고 여분의 추가분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복(餘福)도 복입니까?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여복도 복이라고 하겠어요. 잘못된 것이 근원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야 될지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으니깐.

그러면 성경에서의 축복이라 하는 것은 뭐냐, 내 노동으로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이것은 나만의 세계, 내가 힘들어서 얻은 내 영역, 이것은 손대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안에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한 그것을 포함해서 저쪽세계에서, 주님 쪽에서 붓물 터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게 되면 뭐가 허물어지느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것, 손대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애써서 얻은 겁니다. 이것 손대면 나 화낼 거야.’라고 여겼던 그 모든 장벽이 허물어질 때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한 현실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것, 내가 다듬은 나의 세계가 헛것이고 허무한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그 상태를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것이 없다면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 다시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세상 다시보고 그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방향을, ‘일단 내가 살아 있으니깐 내가 알아서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방향을 나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은 저주예요.



이것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고 그것은 사서 매를 맞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내 쪽에서 저쪽 보지 말고 밀려오는 주님 쪽에서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방주가 되는데 방주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방주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노를 젓는다고 계속해서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왕의 경우처럼 ‘저 세례요한 저것은 내가 목을 베면 그만이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헤롯왕의 경우가 무용지물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세례요한 분명히 목을 베어서 솥통을 끓여놓았는데 왜 그 인간이 또 살아났지?’ 세례요한 이 대목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봐야 돼요.

원래 가을이 되면 남성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답니다. 남성들이 울적한 기분이 드는 이것이 자연현상인데 가을이라는 축복이 밀려옵니다. 밀려오게 되면 괜히 바바리 입고 깃도 한 번 세우고 싶고 누군가에게 편지도 하고 싶어지지요. 특히 잘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왜 모르는 여자를 찾습니까? 자기여자, 자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을은 모든 것을 다 낙엽과 같은 일체감으로 느껴요. 낙엽처럼 뭔가 떨어진다는 느낌, 뭔가 다 싹 쏠려간다는 느낌, 왜 그렇게 허전한지, 가졌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이 들지요. 남자들은 바바리 입고 깃 세우고 텅구는 낙엽을 밟고 들어와서 방에 들어앉아 있고 여자들은 돈 번다고 밖으로 다 나가고 없고.

본문 9절에 헤롯이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린다는 것은 헤롯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무엇이 점령했는가? 마치 밤중에 커다란 비행접시가 대도시를 다 덮는 것처럼 갑자기 예상 못한 비행체가 떴어요. 비행체가 떠서 완전히 이 세상을 덮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떴을 그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하고 똑같은 심성을 가진 예수님 그 당시의 세례요한을 죽일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던 헤롯왕이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아주 생생한 소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떴다는 것을 미친 사람 하나 뜬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뀔 조짐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흡사 가을이 온 것처럼, 그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밀쳐내려고 해도 밀칠 수가 없는 힘으로서 우리에게 죽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밀려왔을 때 헤롯왕은 비로소 자기의 왜소함을 느끼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철학과 기존의 철학과 기존의 상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분명히 세례요한의 목을 내가 잘랐는데 왜 그가 또 살아 난거야?’ 우리 보기에는 헤롯왕은 혼자 착각하고 별별 떨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헤롯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 그동안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손대시

면 안 됩니다.’라는 경계선이 허물어지는데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 소스라치는 놀라움이 우리의 온몸으로 느껴져야 돼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렇게 보면 ‘세례요한은 목이 잘렸으나 그 세례요한은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으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헤롯이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죽 나오는데요, 1장에 세례요한이 보여줘야 될 세례요한의 일이 죽 나옵니다.

1장 68절부터 죽 나오는데 여기서 다 읽지는 않습니다. 헤롯왕이 세례요한 만났을 때 헤롯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요한 네가 어디서 나한테 까불어. 너는 내가 명령만 내리면 곧 내 손에 죽을 수가 있어. 왜, 죽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고 너도 나와 같은 인간이기에 죽는 것은 너도 싫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 맞지? 나한테 까불지 말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 그러면 내가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헤롯왕이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마치 캡슐 갈아서 세례요한을 탁 치는 그 순간, 세례요한이 깨지면서 세례요한이 갖고 있던 사명, 의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지상에 와르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헤롯왕 입장으로 살면 자꾸 밀리고 또 밀리게 돼요.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오는 이유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 자리를 바꾸라는 말이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헤롯왕처럼 ‘주님이여, 제가 축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갖고 있는 이것, 내 주식만은 날아가면 곤란합니다. 내가 노동해서 얻은 겁니다. 축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쓴 것만이라도 좀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이것 날아가면 저는 못삽니다. 하나님은 제가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지요? 제가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라고 자꾸 버티면 주님은 자꾸 무서움과 두려움의 세상으로 자꾸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물러갑니다. 물러가다가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요. 빠지고 맙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게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자 뵈는데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더 이상 주님과 거래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밀려오니까!

헤롯이라는 사람 앞에서 세례요한이 가만있었으면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취미가 남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껌 데기에 불과하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 들어 있었고 세례요한이 해야 될 사명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물주머니죠.

어느 식당에 가니까 비닐에 물 담은 물주머니를 달아 놓았어요. 그러면 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례요한 자체가 언약하기 짝이 없는 목을 베면 그대로 잘려져야 하는 하나의 물주머니인데 물주머니 터지면 물이 팔팔 쏟아지듯이 목만 베면 주님의 뜻이 담긴 약속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입장은 본인은 물주머니가 아닙니다.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다만 단단한 쇠덩이같이 ‘이것은 그동안 내가 애써서 공부해서 노동해서 얻은 내 것인데 이것은 기본으로 챙기는 것이고 축복이란 개념은 내가 하나님께 잘 헤드리면 내가 가진 기본에서 더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세례요한이 쿡쿡 쑤시는 거예요. ‘어이 헤롯!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겠어?’ 이렇게 쑤시니까 ‘세례요한은 대중이 따르는 선지자니까 내가 봐준다. 내가 힘이 없어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봐주는 것이다.’ 하고 밀리거든요. 밀리면 대충 눈치 봐서 적당히 하면 될 것인데 계속 폭폭 쑤셔대는 거예요.

계속 쑤셔대니까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헤롯이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 간다. 예라, 당해봐라. 내가 싫어하는 것이 평생 동안 지키고 일구어온 내 목숨 달아나는 것이 제일 싫듯이 세례요한도 나와 같을 것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에게 행사하겠다. 이제 내가 무서운 줄 알겠지.’라고 목을 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을 벤 세례요한이 또 살아났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이 공포로 밀려오는 것, 쉽게 말해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공포가 되는 그것이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린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매일같이 산다는 것이 힘들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키 좀 흰칠하고 몸무게 좀 나가서 체격도 건장하고 망토 걸치고 오시면 믿겠습니다.’ 자꾸 보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를 만났던 그 헤롯왕은 주님을 그런 식으로 느끼지 않고 알 수 없는 공포로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끌어모은 권력과 금력, 이것으로도 그 공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내가 가진 힘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는 그 알 수 없는 공포, 마치 명절에 친척들과 화투칠 때 친척들 돈 다 끌어 모아서 내 것 만들고 화투장 털면서 일어날 때 느끼는 그 공포, 사람이 남다 망했는데 자기 혼자 잘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공포.

분명히 축복인데 뭔가 이상한 축복, 그림자가 긴 망토처럼 너무 길게 드리워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성공, 그런 느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왜 네 인생의 노를 왜 그렇게 힘들게 젓느냐.’ 제가 오늘 본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또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땀에는 완벽하게 흠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쉽게 우리말로 통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사울아, 네가 네 식대로 산다고 애 참 많이 쓰지? 하지만 맨발로 선인장을 차면 선인장이 아프겠냐, 네가 아프겠냐? 네가 아프지. 왜 자꾸 네 스스로 사서 하는 고생, 헛짓을 하고 있느냐. 나 예수는 네가 아무리 뽀박을 해도 전혀 상관없이 있는데 너만 힘든 인생을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리를 바꿨습니다. ‘나는 의인중의 의인이라는 자리에서, 나는 완벽하게 살았다는 자리에서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꿨어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노를 저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물결을 보내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도 모르고 살다보니까 이렇게 주님 만나는 곳까지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은 사도가 되어서 약을 올립니다. 소위 그 당시에 여호와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사도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욕이다’ 했습니다. ‘나도 전에 예수님을 욕으로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여 주소서, 믿겠나이다. 주께서 복주시면 믿겠나이다. 내가 노동한 것은 헛겨주고, 이것은 그대로 손대지 않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추가적인 행운을 주실 때, 그 행운이 예수님이 주신 것일 때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이 욕으로 알았던, 이 욕을 포기 못했던, 내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헤롯왕과 똑같은 그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던 나였지만 실상은 내 위주로 바라보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방향을 바꾸면 돼요. 그 물주머니 있잖아요. 세례요한, 그게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물주머니 속에 물이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쫓기 때문에 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세례요한은 계획도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애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가 생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 자식이 생겼다고 보면 안돼요. 그렇게 보면 헤롯왕과 똑같아요. 내 자식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탁송되어 오는 겁니다.

탁송 하니까 생각나네요. 서울에 계신 어머니를 대구로 모시는데 어떻게 탁송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지요. 혼자서는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것이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공포로만 다가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왜 자꾸 주님은 내 일을 가로막고 훼방합니까? 진짜 주님 내 손에 한번 죽어보렵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지금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노아가 아닌 노아언약이고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 같은 인간도 천국 갈수 있다.’ ‘너, 같, 은’ 할 때 그 ‘너’에 해당되는 우리를 작게 보세요. (큰 소리로) ‘너 같은!!!’이 아니라 (그야말로 작은 소리로) ‘너 같은 인간’입니다.

홍의 존재인 너 같은 인간도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천국의 핵심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천국의 비밀, 십자가라는 약속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내 목이 떨어진다 해도 나는 천국이 있고 내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왕은 목숨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노동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제일 싫어하고 자기 목숨 달아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오히려 세례요한은 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다 읽지 않았습시다만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의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니라.”(누가복음 1:68-79)

이 모든 내용이 세례요한 속에 물주머니 속에 든 물처럼 출렁출렁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 있으니까 세례요한은 외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태어난 이유요 목적이요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능,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가 몇 센티며 몸무게가 얼마며 학교는 어디를 나왔으며, 이런 식으로 육으로 자꾸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이 터뜨려낸, 그 십자가에서 쏟아진 피와 살이 우리의 썩어진 지옥 갈 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이 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 어리석은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안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약속이 주님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 있는 그 대신 제사한 그 제물, 그 희생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는 죄 없는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내 노동으로 얻었던 것을 버릴 줄 알아야지요. 우리 것은 주님의 하신 일을 훼방할 뿐이고 내 것을 주장하는 이상 항상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반발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헤롯왕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요한같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고, 방주가 가다가 여기 저기 툭툭 부딪히더라도 그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정박하더라도 복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에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것이라.’(롬 14:8)고 합니다.

헤롯왕이 알았던 그 예수님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교회 나올 때 복음 안다, 그러니 복음대로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살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공포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복음만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은 무섭지 않습니까?’하고 표정을 봐요.

그런데 웬 기적인지 웬 은혜인지 교인들은 전부 다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종종,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는 여러 가지 문제, ‘휴~, 복음을 들어서 내 노동한 그것 외에 여분의 것이 추가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없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나아졌습니다. 내 것은 죽어도 못 내놓겠다든 겁니다. ‘이것까지 침범하면 더 이상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것이 목 치는 겁니다. 자기 목 치는 것이고 세례요한 목 치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자리요? 껍데기입니다. 죽는 거요? 그것은 잠자는 겁니다. 방향을 내 쪽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해서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그냥 공짜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놓고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여,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또 부엌 칼 들고 설치면서 ‘예수 나와! 죽어버릴거야.’ 이렇게 우리 안의 헤롯왕이 또 난리피우는 거예요. 귀신이 또 설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공포야 보여주면 믿을게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하고 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껍데기입니다. 그저 당구공 구르듯이 여기 치면 저쪽으로 빠지시고 또 저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당구공 이리 저리 튀기듯이 교사로 빠지고 목사로 빠지는 그냥 빠지는 겁니다.

여기 저기 툭툭 부딪히더라도 스스로 자기 인생의 노를 젓지 마세요. 갖고 있는 그 노를 다 분질러 버리세요. 다 분질러 버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대로 죽음 이후까지 주께서 인도해서 내 안의 것을 툭툭 터뜨려서 ‘내 안에는 십자가만 들었습니다!’ 하고 십자가만 쏘아 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쓴 것은 내 것이고 추가적으로 받는 것만 복이라고 여겼던 우리들 헤롯왕이였습니다. 예수 소리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싫어지고 미워지고 배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리가 이제 약속이 만든 물주머니처럼 되어서 주의 약속이 이정도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매일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